

‘면허 취득’ LCC 3인방, 인력 확보하며 飛上 준비

신규 LCC(저비용항공사)로 선정된 플라이강원,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항공이 인력 채용을 실시하는 등 본격적인 운항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면허를 새로 취득한 3개 항공사에서는 올해에만 400여명, 2022년까지 약 2000명을 신규 채용한다. 특히 조종·정비사 등 안전 전문인력 채용여부를 면밀히 살펴보고, 불충분할 경우 항공기 도입, 노선허가를 제한한다.

이번에 면허를 발급받는 3개사는 향후 1년 내에 운항증명(AOC, 안전면허)을 신청해야 하며 2년 내에 취항(노선허가)해야 한다. AOC 단계에서 안전운항체계 전반(1500여개 항목)과 시범비행 탐승점검 등을 거쳐야 한다.

우선 플라이강원은 오는 11일부터 신규 채용을 시작한다. 채용분야는 항공운송업 전 직군이다. 규모는 약 1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플라이강원은 자본금 378억원에 2022년까지 항공기 10대 도입계획(B737-800)으로 양양공항을 기반으로 중국



플라이강원

11일부터 항공운송업 100명 신규채용
2022년까지 항공기 10대, 25곳 취항

· 일본·필리핀 등의 25개 노선 취항을 계획하고 있다.

국내의 44개 여행사와 여행객 모집 파트너십을 통해 강원도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해 수요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으로 강원도로부터 135억원의 자본금을 지원 받았고, 다수 투자처로부터 1000억원 수준의 투자방향도 받아 놓은 상태다.

에어프레미아는 초기운항 인력으로 한국인 기장 30여명의 입사 예정자를 확보한 상태다. 에어프레미아 관계자에 따라



에어프레미아

기장 30여명 확보... 올해 소규모 채용 진행
2022년까지 항공기 7대, 중장거리 9곳 취항

면 올해는 소규모 채용을 진행할 예정이다. 취항을 시작하는 내년부터 객실 승무원을 포함해 본격적으로 대규모 인력 채용을 시작한다. 또한 에어프레미아는 자본금 179억원(자본잉여금 188억원 별도)에 2022년까지 항공기 7대(보잉787-9)를 도입한다. 인천공항 기반으로 미국·캐나다·베트남 등 중장거리 중심의 9개 노선 취항을 계획하고 있다.

미주 등 중장거리 노선 취항 및 프리미엄 이코노미석(기존 대형항공사 비즈니스

석보다 저렴하면서 이코노미석보다는 넓은 공간 제공) 도입과 같은 서비스 차별화 전략을 통해 수요를 확보할 계획이다.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이외에도 다수 투자처로부터 1650억원 규모의 투자방향도 받아놓았다.

에어로케이항공은 AOC 신청 이후 준비를 거쳐 신규 채용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에어로케이항공은 자본금 480억원에 2022년까지 항공기 6대(A320급)를 도입하며 청주공항을 기반으로 일본·중국



에어로케이항공

AOC 신청 후 준비거쳐 신규채용 예상
2022년까지 항공기 6대, 11곳 취항

· 베트남 등의 11개 노선을 취항한다. 또한 저렴한 운임 및 신규노선 취항 등을 통해 충청권·경기남부의 여행수요를 흡수해 수요를 확보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월 면허 신청한 플라이강원,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 에어필립, 가디언즈 등 5개 사업자에 대해 면허자문회의의 최종 자문을 거쳐왔으며 그 중 선정된 이들 3개 항공사에 게 지난 5일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했다. /정영우기자 ywj964@metroseoul.co.kr

AI 로봇 ‘클로이’, 동화책도 읽어준다

LG전자-(주)아들과딸 MOU
9만여개 콘텐츠 도서업 탑재

LG전자가 로봇 ‘클로이’에 아동용 교육 콘텐츠를 가르친다.

LG전자는 7일 아동용 콘텐츠업체 주식회사아들과딸과 LG 클로이 인공지능 홈 로봇 교육용 서비스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아들과딸은 영유아와 초등학생을 위한 콘텐츠 업체다. 디지털과 도서 등을 만든다.

LG전자는 클로이에 아동용 도서업 ‘아들과딸북클럽’을 탑재할 예정이다. 70여 출판사가 만든 9만여개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클로이는 아이들에게 동화를 읽어주고 자장가를 들려주는 등 아이



LG전자 노진서 로봇사업센터장(왼쪽)과 아들과딸 조진석 대표가 업무협약을 맺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LG전자

들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게 됐다. 표정과 음성으로 감정을 표현하면서 실제 대화하는 느낌까지 준다. /김재용 기자 juk@

5G 패션 스마트팩토리 구축을 위한 상호 공동협력 MOU 체결



KT 이필재 마케팅부부장(왼쪽부터), apM이커머스 석주형/송시용 공동대표, 알에스오토메이션 강덕현 대표가 MOU 체결 이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KT

KT, 5G 패션 스마트팩토리 구축

apM이커머스와 공동협력 MOU

KT는 apM이커머스, 알에스오토메이션과 서울 동대문에 위치한 에이피엠그룹본사에서 ‘KT-apM이커머스-알에스오토메이션, 5G 패션 스마트팩토리 구축을 위한 상호 공동협력 MOU 체결식’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에이피엠그룹은 동대문의 대표의류도매상가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1300여개 매장이 입점해 있다. apM이커머스는 에이피엠그룹의 온라인 쇼핑몰 운영 등 디지털 사업을 총괄하는 패션 정보기술(IT)

T) 기업이다.

알에스오토메이션은 산업용 제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로봇모션 제어, 에너지 제어장치 사업 영역에서 산업용 제어 솔루션을 주력 제품으로 하고 있는 스마트팩토리 전문기업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5G 기반 네트워크 환경 및 IT 인프라 구축 ▲복제공장에 최적화된 5G 지능형 로봇 개발 ▲AI·빅데이터를 활용한 패션 트렌드 분석 ▲스마트팩토리 구축을 포함한 패션산업 전반에 IT 기술을 적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김난인기자 silkni@

친환경 SUV ‘니로’ 첨단기술 품고 재탄생

기아차 ‘더 뉴 니로’ 본격 판매
주행보조·ADAS 등 상품성 개선
단단하고 역동적인 이미지 강화

독보적인 실용성을 갖춘 친환경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니로가 새롭게 돌아왔다.

기아차는 7일 서울 강남구 BEAT 360에서 니로 상품성 개선 모델 ‘더 뉴 니로’ 하이브리드·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공개 행사를 갖고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니로는 2016년 출시 이후 하이브리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전기차 라인업을 구축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지난달까지 약 27만대 넘게 판매된 친환경차 대표 모델이다.

‘더 뉴 니로’의 주요 특징은 ▲차로유지보조, 고속도로주행보조 등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 사양등급최초 적용 ▲전방 충돌방지 보조, 차로 이탈방지 보조 등 소비자 선호사양 기본화 ▲단단하고 역동적인 느낌을 주는 외장디자인 ▲심리스(Seamless)한하이그로시 크래시 패드로 구현된 미래적인 내장 디자인이다.

더 뉴 니로는 기존 모델의 정체성을 이어가면서 보다 단단하고 역동적인 SUV



기아차가 7일 오전 서울 강남구 BEAT 360에서 니로 상품성개선 모델 ‘더 뉴 니로’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선보이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이미지, 친환경 이미지를 강화했다. 전면부는 ▲3D 입체감의 다이아몬드 형상 파라메트릭 패턴(가운데서 바깥으로 흩날려 나가는 패턴)을 적용한 라디에이터 그릴 ▲그릴 하단부에 적용된 크롬 ▲새로운 하단부 범퍼 ▲화살촉 형상의 듀얼 LED DRL(주간주행등) ▲신규 디자인의 프로젝트 헤드램프 등을 적용해 역동적이며 강렬한 느낌을 완성했다.

더 뉴 니로의 외장 컬러는 첨단 친환경차 이미지를 더하는 신규 색상 플래티넘 그라파이트, 호라이즌 블루를 포함해 총

6종을 적용했다. 내장 컬러는 블랙 원톤, 플럼 색상을 시트 가죽에 적용한 플럼 투톤, 크래쉬 패드 가니쉬와 시트 스티치에 포인트를 준 오렌지 포인트 등 총 3종으로 운영된다.

더 뉴 니로의 가격은 하이브리드 기종의 럭셔리 트림이 2420만원, 프레스티지 트림이 2590만원, 노블레스 트림이 2800만원, 노블레스 스페셜 트림이 2993만원이다. 플러그인하이브리드는 노블레스 트림이 3452만원, 노블레스 스페셜 트림이 3674만원이다. /양성운 기자 ysw@

LG화학, 수요예측 호재에 1조 회사채 발행

수요예측에 2조 6400억 몰려
확정 금리 오는 12일 최종결정

LG화학이 1조원의 회사채를 발행한다.

LG화학은 지난 5일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5000억원 규모의 회사채 수요예측을 실시한 결과 총 2조 6400억원의 자금이 몰렸다고 7일 밝혔다. 지난 2012년 국내에 수요예측 제도가 도입된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성공적인 수요예측에 힘입어 LG화학

은 회사채를 당초 계획인 5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증액 발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만기 3년물 1600억원, 만기 5년물 2400억원, 만기 7년물 2000억원, 만기 10년물 4000억원을 발행할 계획이다.

수요예측에 많은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LG화학은 우수한 금리로 회사채를 발행, 금융비용 절감 및 유동성 선확보가 가능해졌다. 확정 금리는 오는 12일 최종 결정되며 금리는 개별인평금리 대비 0.01%~0.07% 낮은 수준으로 예상된다.

정호영 LG화학 COO 사장은 “이번 회

사채의 성공적인 발행은 투자자들이 당사의 안정적인 재무현황과 미래 성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며 “앞으로도 사업구조 고도화를 적극 추진해 기업가치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LG화학은 이번 회사채 발행으로 확보한 자금을 전기차 배터리 수주 물량 대응을 위한 생산능력 확대, 여수 NCC 증설 등 미래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시설자금 및 장기투자 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김유진 기자 ujin6326@